NEWS
2025년 4월 17일 목요일

세월호 11주기 선상추모식

“다시 찾아온 봄… 여전히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참사 가족·지인 등 75명, 사고 해역서 ‘울음바다’
녹 뒤덮인 선체 놓인 목포신항서 ‘기억식’ 참석도
광주시교육청, 안전 교육환경 조성 다짐 등 추모

세월호 참사 11주기인 16일 전남 진도군 참사 해역에서 선상추모식이 열린 가운데 유가족들이 희생자를 위해 꽃을 헌화하고 있다.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16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은 4·16참사 11주기를 맞아 사고 해역에서 선상 추모식을 열었다.

이날 추모식을 위해 해경이 준비한 3000t급 3015경비함정에는 참사 가족, 지인 등 34명을 비롯해 관계자 등 75명이 탑승했다.

오전 7시30분 목포 해경부두에서 출발한 경비함정은 뱃길로 3시간을 달려 오전 10시30분께 약 96㎞ 떨어진 사고 해역인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에 도착했다.

경비함정 옆으로 세월호가 침몰한 장소를 알리는 ‘세월’이라는 글자가 적힌 노란 부표가 안개 사이로 보이기 시작하자 유족들은 하나둘씩 추모식이 열리는 갑판으로 이동했다.

사고 해역 도착 후 묵념과 함께 시작된 선상 추모식은 추도사, 헌화, 참사해역 선회 순으로 엄수됐다.

묵념 후 별이 된 희생 학생 250명의 이름들이 하나씩 바다에 울려 퍼지자 유족들은 먹먹한 가슴을 부여잡고 한숨을 쉬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일부 유족들은 깊고 짧은 탄식을 내뱉으며 눈을 지그시 감거나 양 손으로 얼굴을 감싸기도 했다.

국화가 바다에 헌화되자 유족들은 주저앉아 아이의 이름을 목놓아 부르거나 ‘잘 지내느냐. 보고 싶어’, ‘올해도 아빠가 너 보러 왔다’ 등을 토해내며 오열했다.

수십여 송이의 꽃들이 망망대해에 띄워지자 유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고, 선상 위는 눈물바다가 됐다.

봄이면 학교 벚꽃을 보고 좋아했던 아이들의 기억을 담아 챙겨온 벚꽃 잎도 참사 해상에 뿌려졌다.

헌화를 마친 뒤에도 자리를 뜨지 못한 채 세월호 침몰 장소를 연신 바라보며 참아온 애끓는 간절함을 쏟아내는 유족도 곳곳에서 보였다.

단원고 2학년 3반 김빛나라 학생의 어머니 김정화씨는 “10년 전 교복 입은 아이들을 보면 내 아이가 아닐까 하는 두근거림으로 눈을 뗄 수 없었다”며 “지금은 장성한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산이 변하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아이가 너무 보고 싶다. 어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너무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40여분 간 이어진 선상 추모식은 경비함정이 희생자들을 기리며 노란 부표를 순회하는 것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유족들은 침몰 해역에서 희생자 곁을 지킨 부표가 희미해질 때까지 갑판 위에 머무르다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제서야 무거운 발걸음을 뗐다.

단원고 2학년 9반 정다혜양의 어머니 김인숙씨는 “매년 사고 해역을 찾고 있지만 가슴이 미어지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은 똑같다”며 “아이의 마지막 숨결이 남은 곳이라는 생각에 올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꿈에서만 아이를 본다. 꿈에서 깨면 허탈하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아이를 꼬옥 안아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선상추모식 후 유족들은 세월호가 거치돼 있는 목포신항으로 발걸음을 옮겨 목포 기억식에 참석했다.

광주시내 곳곳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렸다.

이날 광주시교육청은 청사 1층 북카페에서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최승복 부교육감, 국·과장, 직원들이 참여해 희생자를 기리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다짐했다.

직원들은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이름이 담긴 명함 엽서에 추모와 실천 다짐을 적었다.

이어 비판적 사고를 통해 스스로 삶을 설계하는 학생 중심 교육,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교육,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직무 책임 실천,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한 교육의 역할 등을 함께 다짐하고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 남구는 김병내 구청장과 간부공무원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운광장 양우내앞애 앞 광장에서 추모식을 진행했다.

추모식은 헌화, 묵념, 추모사·추모시 낭독, 합동헌화, ‘천개의 바람이 되어’ 제창 등 순으로 열렸다.

광주 북구마을촛불모임도 북구청사 앞에서 ‘기억의 시간’을 주제로 추모행사를 열고, 마을 주민과 시민, 대학생, 지자체 관계자 등 40여명과 함께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또 이들은 세월호와 이태원, 제주항공 참사 등 반복되는 국가 재난 속에서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과 미완의 책임자 처벌, 국가의 책임 회피와 방기 등을 지적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주시청 노란깃발… 시, 세월호 11주기 추모

강기정 시장, 안산 기억식… 직원들 합동분향소 참배

광주시는 16일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시청 계양대에 ‘세월호 노란 깃발’을 내걸고, 희생자들을 기억·추모하며 ‘안전도시 광주’ 조성을 다짐했다.

광주시는 이날 국기게양대에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세월호 추모기를 내걸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제주도를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안전생명사회를 조성하겠다는 다짐이다.

‘여의도 집무실’로 출근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시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할 예정이다.

고광완 행정부시장과 공직자들도 이날 오전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11주기 시민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기렸다.

광주시 공직자들은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는 한편 안전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특히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자처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광주광역시청 계양대에 세월호 깃발을 걸었다. 세월호 가족들은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자 사회적 참사 속에서, 탄핵 광장에서도 위로와 연대를 함께했다”며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안전생명사회를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언제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시민의 일상이 지켜지는 광주를 만드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저탄소 농산물 인증사업 도, 3275ha ‘전국 최다’

전남도는 2025년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사업 대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75ha(141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남지역 저탄소 농산물 인증 대상으로 선정된 면적은 3275ha로, 전국 대상 면적 4283ha의 77%에 달한다.

시군별로는 신안 473ha, 나주 314ha, 강진 248ha, 해남 212ha, 진도 198ha, 함평 191ha, 고흥 180ha 등이다.

선정된 농가는 4월부터 탄소절감 기술 실천 현장 확인과 탄소배출 보고서 제출 등을 거쳐 8월에 인증서를 발급한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변화로 저탄소 농산물 시장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ESG경영 기업, 수도권 자치단체, 전문유통업체 등과 협력을 강화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남구, 행안부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 선정

5개 자치구 유일… 특교세 3억 확보

광주 남구는 16일 행정안전부의 ‘2025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 공모에서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추진한 생활권 로컬브랜딩 사업은 지역마다 차별화된 고유성을 경쟁력으로 삼아 강점과 특색을 살리고, 이를 통해 지역을 생활권 단위(도보 15분 내외)로 ‘살 만하고 올 만하게’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리는 기획디자인 유형 외에 맞춤형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특화인프라 유형을 신설해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공모 방식을 세분화했다.

광주 남구는 ‘미래를 위해 함께 걷는 푸른 동행’, ‘백운 푸른광장 프로젝트’로 전국 10개 지자체와 함께 ‘기획디자인 유형’에 선정돼 지역 고유성을 바탕으로 생활권 전체를 아우르는 로컬브랜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부처와 민간사업과 연계도 추진하게 된다.

광주 남구는 특교세 3억원과 지방비 3억원 등 6억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12월까지 백운광장 일원에 로컬브랜딩 기획디자인을 통해 백운광장 일원의 위상 회복과 지역 활력 제고, 남구만의 펫코노미 특화 골목산업 발전 전기 마련, 일자리 창출과 체류인구 확대, 상인매출 증진 등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할 방침이다.

올해 신설된 ‘특화인프라 유형’에는 전남 나주시와 강진군 등 7곳이 선정됐다.

행안부는 선정된 18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총 91억원을 신속히 교부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